

숨은그림찾기 <116>



(찾아보세요) 프라이팬, 립스틱, 평이, 디리미, 사람 옆 얼굴, 얼대어, 바늘, 깔때기, A자

사투리 후보

어느 사투리가 심한 국회의원 후보가 시골 선거구에서 공약을 하고 있었다.

“이곳을 강간단지로 개발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구석구석에 도로를 간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에 다른 후보가 나섰다. 그는 전직 외무부장관이었다.

“친애하는 유권자 여러분, 강간이 됩니까? 관광이자... 또 간통은 됩니까 관통이지...”

듣고 있던 사투리 후보가 화를 냈다.

“이보시오, 전 아무부 장관! 당신의 애무나 잘 하지 선거엔 왜 나왔소?”



지난주 정답

서틀록, 사자, 펜촉, A자, 음표, 길매기, 불링핀, 당근, 디리미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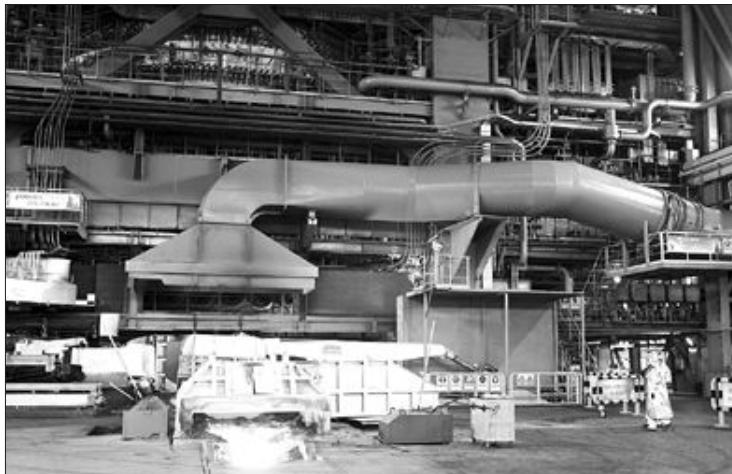
▲당첨자: 신영순 <장흥군 장흥읍 건선리> 이진경 <광주 광산구 운남동>

아하! 오늘 바로 그날

3월 20일 철강왕국 ‘포항제철’ 탄생

1994년 국내기업 최초의 뉴욕증시 상장. 1995년 런던증권 시장 상장. 1998년 조강(粗鋼·제강)로에서 제조된 그대로의 가공되지 않은 강철(생산 세계 1위)의 철강회사.

한국 경제의 성장 중심에 있었던 포항종합제철(주)은 국내 유일의 고로(高爐: 용광로) 업체로 철강 등 주요 기간 산업을 육성한다



지난해 5월 포스코는 파이넥스 공장 준공식을 갖고 차세대 철강생산기술인 파이넥스 공법을 도입했다.

는 점부터의 방침에 따라 1968년 3월 20일 회사 창립총회를 갖고 제철소 건설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한국 철강산업 발전의 꿈은 1960년대 정부의 종합제철 건설 계획 수립과 함께 시작됐다. 1968년 창립한 포항종합제철은 1973년 우리나라 최초로 조강 103만 t의 1기 설비를 준공하고 국제 철강 협회에 가입했다. 네 번의 확장사업 끝에 1983년에는 조강 910만 t의 포항제철소를 완공하면서 ‘영일민’의 신화를 만들었다.

1985년에는 광양 1기 착공을 시작해 광양만의 역사도 새로 써내려갔다. 1992년 광양제철의 종합준공식을 갖은 포항종합제철은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등 2개의 제철소를 보유하게 됐다.

우리나라 철강 산업을 선도하던 포항종합제철은 2000년 10월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전량 매각하면서 민영화됐다. 민영화를 통해 ‘포스코’(POSCO)라는 이름으로 거듭났

다.

지난해 5월 30일에는 세계 최초로 기존 용광로 공법을 대체하는 포스코 파이넥스(FINEX) 공장 준공식을 갖고 세계 철강사를 새롭게 썼다.

파이넥스 공법은 소결공장과 코크스공장을 거치지 않고 철광과 유연탄을 고로에 직접 넣어 그대로 쇳물을 뽑아내는 신기술이다.

기존 용광로 공법에 비해 쇳물을 제조원가를 15~17% 가량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철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도 획기적으로 줄인 친환경 공법으로 평가 받고 있다. 파이넥스 공장은 2004년 8월 포항제철소 내에 착공해 1조600억원의 예산을 들어 3년 만에 준공했다.

2008년에는 조강 생산 5천만 t을 목표로 세우고 베트남, 인도 등에 해외 생산기지를 확대하고 생산 설비를 증설하는 등 우리나라 철강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리빙 센스

카펫 청소와 보관

봄이 왔습니다. 겨우내 사용했던 카펫을 청소하고 새 기분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카펫 청소

카펫 표면에는 머리카락이나 미세한 먼지가 묻어있기 쉽습니다. 청소기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유리 테이프로 머리카락이나 미세먼지를 제거해주세요.

소금을 뿐보다가 청소하는 것도 좋습니다. 먼지가 소금에 달라붙으면 깔끔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먼지가 깨끗이 제거되고 카펫의 빛깔도 한층 선명해집니다.

▲카펫 보관

카펫을 걷어 빨래대 같은 곳에 놓고 두들겨 먼지를 털어주세요. 진공 청소기로 남은 먼지를 제거한 다음 중성세제를 약간 풀 물에 타월을 적셔 카펫 구석구석을 닦아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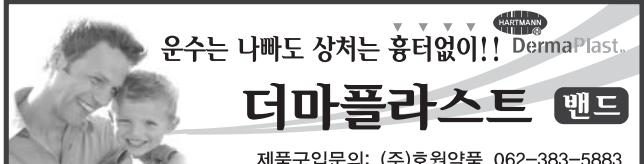
세탁이 끝나면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말려 두세요. 보관할 때 카펫 사이에 신문지를 끼워 둘 그렇게 말아두면 습기와 더러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19일(음 2월 12일 戊午)

	36년생 주변의 변화가 손재로 들어오니 신중하게 처신. 48년생 새로운 변화로 재물이 생길 수 있다. 60년생 아내의 건강도 살펴보면 해롭 일이 있다. 72년생 직업과 돈, 남편, 자녀들까지도 조심해 살펴라. 84년생 뒤를 한번 돌아보라. 행운의 숫자 : 23, 43
	37년생 불안이면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니 주변인을 조심하라. 49년생 재물과 처에 시달림이 있을 수 있다. 61년생 건강을 위한 꾸준한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라. 73년생 제사가 불리하다. 85년생 힘껏 달려보면 결과가 좋으리라. 행운의 숫자 : 02, 32
	38년생 재산은 증진되나 아내나 이해가 부족 되니 대화가 필요하다. 50년생 학교가 나타나지만 조심성 있게 판단하라. 62년생 생활보다 길이 더 많으니 애심하고 보내라. 74년생 좋은 일과 연결될 수 있다.
	39년생 구설 등으로 불리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51년생 춘화기가 발동하면 맘신수가 발생한다. 63년생 모든 일에 신중하고 신심을 버려라. 75년생 기상천외한 황재수가 있고 노력에 비례해 대가가 증가된다. 행운의 숫자 : 18, 42
	40년생 본인의 뜻을 이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52년생 인생은 지금부터, 멋지게 행동하라. 64년생 흥분은 글들이나 생활하고 행동하라. 76년생 직장에서 새로운 일로 인정받고 가정의 편안이 있다. 행운의 숫자 : 06, 41
	41년생 실물수는 있으나 재물도 들어온다. 53년생 새로운 일이 생기는 전후로 우울할 수 있다. 65년생 뜻하지 않은 대가로 주변이 어지럽다. 77년생 오늘 할 일을 미루거나 미루면 대단히 불리해진다. 행운의 숫자 : 13, 27
	42년생 공자 술에 병이 나니 결에도 가지마라. 54년생 상황에 따라서 시비 도난 분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66년생 뜻하지 않은 불운사태에 저해롭게 대처해야. 78년생 새로운 일을 계획하나 쉽지 않은 않다. 행운의 숫자 : 24, 39
	43년생 새일 편한 사람이나 제일 소중한 사람이나 예의를 지키라. 55년생 무모의 부모도 예의를 지키면 사랑은 두 배가 되리다. 67년생 자녀를 보다 둘째를 칭찬하라. 79년생 이성을 만나보라 좋은 진행이 있다. 행운의 숫자 : 20, 16
	44년생 가족과 웃어져 살 일이 생긴다. 56년생 나에게 불편한 일을 내 탓으로 생각하는 반사가 편안하다. 68년생 배우자 덕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 자신의 노력 부족이다. 80년생 인생을 설계해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 22, 33
	45년생 지출도 투자로 생각하라. 57년생 부모, 형제의 도움으로 새 생활이 시작된다. 69년생 작은 일도 꼭 성공하겠다는 각오로 주진하고 81년생 애인과 즐거움은 있으나 미루운다. 행운의 숫자 : 15, 34
	46년생 슬픔도 기쁨도 한꺼번에 나타난다. 58년생 어부지리가 있지만 결과는 좋지는 않다. 70년생 아랫사람과 금전거래는 가능한 괴짜라. 82년생 소탐대실.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채우라. 행운의 숫자 : 12, 37
	47년생 뜻을 취하고 작은 것은 내어주라. 59년생 일실입득,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을 얻는다. 71년생 귀인을 만나서 도움을 받는다. 83년생 부모에게 효도도 중요하나 자식교육은 미래의 행복이다. 행운의 숫자 : 08, 36

www.cafe.daum.net/sajoo114 ☎ 011-632-6121



굿모닝 잉글리쉬 <1120>

I've still got a lot of work to do
저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는데

A : Are you ready?
B : I've still got a lot of work to do.
A : How about if we go tomorrow instead?
B : That sounds good.

A : 준비 다 됐어요?
B : 저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는데...
A : 대신 내일하면 어때요?
B : 그게 좋겠네요.

* go : (일을) 진행하다
* 새 차를 한대 사는 것은 어때요?
= How about getting a new car?
* 저하고 함께 영화 보러 가는 것은 어때요?
= How about taking me to a movie?

오하우우 니혼고 <1120>

雪(ゆき)みたいですね
눈 같아요

A : わあ、すごいですね。花(はな)が風(かぜ)で散(ち)ってきています。
B : 本當(雪(ゆき))みたいですね。
A : 櫻(さくら)の花も多(おお)いけれど、人(ひと)も多いですね。
B : 日本人は花を見(み)ながら、飲(の)んだり食(た)べたりするんですね。
A : わあ、大だんねや。花(はな)が風(かぜ)で散(ち)ってきています。
B : 非常(ひじょう)、 눈 같아요。
A : 花(はな)が風(かぜ)で散(ち)ってきています。
B : 花(はな)が風(かぜ)で散(ち)ってきています。

니하오 종구워 <97>

公園(공원)的人多嗎?

공원에 사람은 많습니까?

A: 公園(공원)人多嗎?
gōngyuán rén duō ma
B: 小遠(不远).
xiǎo yuǎn
A: 公園(공원)人多嗎?
gōngyuán rén duō ma
B: 很多(很多).
hěn duō
A: 公園(공원)人多嗎?
gōngyuán rén duō ma
B: 有(有).
yǒu
A: 公園(공원)人多嗎?
gōngyuán rén duō ma
B: 沒(沒有).
mǎo
公園(공원) {gōngyuán} 公園
多(多) {duō} 許多

한자 이야기 <707>

一寸光陰(일촌광음)

한 일, 마디 촌, 빛 광, 그늘 음

일촌광음(一寸光陰)의 일촌(一寸)은 손가락 한 마디, 또는 길이의 ‘한치’라는 매우 짧음을 나타내고, 광음(光陰)은 빛과 그림자, 해와 달이라는 뜻에서 흘러가는 시간(時間), 세월(歲月), 때를 나타낸다. 따라서 일촌광음은 ‘이주 짧은 시간’이라는 뜻이 된다. 고문진보(古文眞寶)에 ‘우연히 짓는다(偶成)’라는 시가 있다.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려운데(少年易老學難成), 이주 짧은 시간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네(일촌광음불기경, 一寸光陰不可輕). 언뜻 득의 봄풀은 채 꿈도 깨지 않았는데(미각지당춘초몽, 未覺池塘春草夢). 계단 앞 온동나무 잎은 이미 기울 소리를 내네(계전오동나무에 향기, 階前梧葉已秋聲). 이 시는 학문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에게 학문을 열심히 익히라는 권고의 시로서 배움에도 때가 있으니 짧은 시절 부지런히 공부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 시를 흔히 송나라의 대유학자인 주자(朱子, 1130~1200)의 권학문(勸學文)에 나오는 시로 알고 있지만, 주자 이전에 이미 이 비슷한 작품이 여럿 있었다고 한다.